

From: long

Sent: December 12, 2010 9:27 AM

Subject: **지난 날의 追憶**을 읽고

정희자 女史 님 !

" 나는 봄비가 되리
가난한 자의 창문에는
빗물로 적셔주고
메마른 들풀에게는
소생의 단비처럼

4 월 첫날에 비를 뿌려
어둠에 갇친 풀뿌리 적셔주리
잠자는 겨울잠 깨어
돌아난 새삭들
영롱한 빗물 방울로 쓰담듬어 주리
빈 나무가지 살살 흔드는 바람처럼 "

<나는 봄비가 되리 > 전문

축하! 祝賀!! Congratulations !!!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最貧國이 었던 대한민국의 외교관으로

종이 한장의 발령장을 받고 한번도 전에 가보지 못한 오대양 육대륙을
마치 집 앞마당처럼 들락날락하신일 어디 보통일입니까---

그러나 자유당시대에는 나라의 예산이 없어 가족동반도 못한시기에
비하면 다행중다행스러운 일이 아닌가 합니다.

저가 모신 두분인 주이란대사를 역임한 玄時學대사,
주사우디대사를 역임한 柳陽洙대사는 자유당시절 주미대사관 무관으로
발령받았으나 혼자근무지로 가 임기를 마친 두분으로 부터 들은 이야기에
비하면 조건이 상대적으로 좋았다고 느껴 집니다.

정규호대사님은 외교활동을 준비한 일들중 첫째로 꼽으라고
한다면 정희자여사님을 아내로 맞이한 것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어려운 일들도 많았으나 그림이 매개가 되어
외교관의 실마리를 푸는 일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날의 추억>을 처음에는 가슴으로 그 다음에는 가슴과 머리로
마지막으로는 머리로 읽을려고 노력을 해 보았습니다.

어떤 대목은 정규호대님이 직접 쓰시는것과 같은 기분으로 또 다른 부문은
정규호대사님과 정희자여사님이 혼신일체가 되어 모든사람들에게 알리는
일이되기도 하고 그러나 정여사님이 가슴으로 모든 사물을 보듬고
가시는 모습이 참으로 아름답게 닦아 오고 있습니다..

隨筆은 그렇다 치더라도 詩와 그림은 문외한인 이사람에게도
수필 시 그림이 한데 어울려 그렇게 조화가 되는 것이 이런것이로구나
하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출판기념회의 안내문의 순서도 순수한 우리말로 시작된것으로부터
목사님의 소개와 맛있는 음식도 좋았습니다 특히 趙순승박사님의 책펼침
축하말도 .다 좋았습니다.

Laguna Woods 로 옮긴 이후 출판기념회도 처음이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
에게 감동과 감격스러운 일이 된것은 처음인것 같아
고마움을 다시 표하고자 합니다.

운동많이 하시고 건강하신 동안에 많은 글 그림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조일래 드림